동남아시아연구 제 11권 가을호(2001): 91~118

'아름다움'과 '도덕성': 필리핀 사회에서의 여성성과 권력

김 민 정*

Ⅰ. 들어가는 말[1]

이멜다 마르코스(Imelda Romualdez Marcos)와 코라손 아키노(Corazon Cojuangco Aquino)는 필리핀 사회가 여성에게 허용하는 정치권력의 상반된 이미지를 대변한다. 항상 화려한 화장과 의상으로 대중 앞에 섰으며 3천 켤레 구두의 소유자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멜다는, 영부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정치적 능력을 아름다움(beauty)의 이미지와 적극적으로 결부시킨다. 반면, 안경을 낀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온건보수파 카톨릭의 지지를 받았던 코라손은, 독재정권에 맞서다 암살 당한 남편의 뒤를 이은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도덕성(morality)의 이미지와 결부시킨다. 필리핀에서 공식정치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은 아직 소수이며, 그나마도 엘리트 정치가문 출신으로 남편이나 아버지의 정치적 후광에 힘입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은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존재로 평가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가시적인 여성정치인들의 대중적 이미지와 이에 대한 사회적 허용과 지지는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성 이미지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열어준다.

이 글은 필리핀 사회에서 성차(gender)와 권력의 문제를 여성성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2] 근대사회에서 여성성은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의

* 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논문의 2장과 3장에서 현지연구의 사례로 인용되는 것은 발표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1998년 11월-1999년 10월, 1999년 2월-5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필리핀 저지대 농촌지역 마을(Barangay 000, Municipality Naujan, Oriental Mindoro)에서 행한 현지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2) 이 글에서 성차(性差)는 젠더(gender)의 번역어로 생물학적 성(性)인 섹스(sex)와 구분되는 용어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자질로 설명되며, 필리핀도 전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정치영역에서는 비공식적인 존재이며, 노동시장에서는 차별 받으며, 성적 폭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자 위치에 있다. 그러나 동남아 사회의 성차에 대한 민족지들은, 동아시아나 남아시아 여성들에 비해 동남아 여성들이 자율성과 사회적 통제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Ward 1963; Van Esterik 1982, 1996), 여성인류학에서는 도서부 동남아 토착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관계를 "상대적 평등과 보완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Atkinson et al. 1990). 최근 근대후기(post-modern) 또는 탈식민(postcolonial) 논의에서 성차는 "수행되어야 하는 협상된 활동(performative and negotiated activity)"으로 해석되며 그 의미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와 계급, 문화, 국가의 경계에서 "논쟁이 되거나 도전 받고 있다"는 시각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Peletz 1995). 특히 동남아의 사회는 "경쟁과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는(contested)" 성차에 대한 다양한 역사문화적 맥락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여성성 또는 남성성은 문화적 상징(symbol)이다.[3] 즉 특정 사회내의 의미체계에 의해 그 의미가 부여되며, 그 의미는 사회 질서를 구성

이다. 이 용어에 대해 『아메리칸 헤리티지 영어사전』(3판, 1992)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통적으로 젠더는, 일차적으로 문법적 범주인 "남성(masculine)", "여성(feminine)", "중성(neuter)"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 단어는 섹스에 기초한 범주(sex-based categories)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잘 정립된 용례들을 갖게 되었다. 가령 젠더 격차(gender gap) 라든가 젠더 정치(politics of gender) 같은 구절에서처럼 이 용어법은 많은 인류학자들의 실천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은 섹스를 생물학적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젠더를 사회적 또는 문화적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른다면 가령 '의료의 효율성은 환자의 (젠더가 아니라) 섹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농촌 사회에서는 (섹스 역할이 아니라) 젠더 역할이 좀더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게 된다. 이 구분은 원칙으로 유용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어서 모든 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용례의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754)"(Scott 1999). 마지막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이 문장을 인용한 조안 스캇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이 용어의 정의와 학문적 사용은 여성학의 중요한 이론적 쟁점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성 범주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한편, 특정 사회에서 성차의 상대적 지위(status)를 논의함에 있어 위세(prestige), 지배(dominance), 권력(power) 과 같은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인류학의 주요관심이었던 성 평등적 사회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부장적 사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주류적 입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위세, 카리스마, 지위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차 간의 비대칭성(asymmetry)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Ortner 1996[1990]: 140-1). 여기서 위세, 카리스마, 지위는 위계관계가 기반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자원이라는 점에서, 남성이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관계로서의 '지배'나 남성 자신 및 여성의 존재양식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으로서의 '권력'과 구분된다. 성차 관계의 형성과 변화의 역사적 과정에 주목할 때 권력이란 용어는 그것이 함의하는 구조(기능)적 성격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지만, 현대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성차 간 비대칭성을 권력이란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일단 권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인류학의 상징주의에 대해서는 기어츠(Geertz 1973), 오트너(Ortner 1984)를 참조할 것. 문화를 상징체계로 보는 입장 중 기어츠가 강조하고 있는 문화연구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것의 '진리'를 '설명(explan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내재한 '부분적 진실'에 근거하여 '해석(interpretation)'하는 것이다.

하는 다른 요소들의, 예를 들어 신체, 가족, 지역 공동체, 계급, 국가, 세계질서 등의 상징적 의미와 상호 관련된다. 그리고 그 의미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갈망, 망설임, 회피, 두려움, 반발 등과 같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반응을 통해 구현된다. 특정 사회에서 파악되는 성차의 불평등 체계 및 구조는 단순하지도 일관되지도 또 불변하는 것도 아니며, 어느 사회에서건 특정 범주의 성원들과 관련되지 않는 완벽히 중립적인 인간의 자질을 상상하는 것은 힘들지만 또한 성원들 모두가 자신이 속하는 범주의 자질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특정 사회에서 여성성 또는 남성성으로 간주되는 자질들은 스테레오 타입으로서 특정 이미지를 통해 구현되고, 그 이미지는 특정 역할모델을 통해 성원들에게 제시되고,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행을 기대하고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힘을 발휘한다. 성차의 문제를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특정 자질의 측면에서, 그러한 자질이 담지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성차 범주의 각 개인들이 모두 특정 이미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적 측면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차의 이미지는 양면적이고 모순적이어서, 한 성에게 특정 자질을 이상화하고 요구할 때 그것을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개인의 위세는 올려주지만 그것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게는 낙인이 부과된다. 이런 점에서 성차 이미지와 권력간의 관계는 (그런 특정 자질을 갖추는 데 더 유리한) 정치경제적 자원이나 인관관계망의 자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급적 함의를 갖는다. 어느 사회든 성차에 대한 이미지들은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며, 그것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해석은 단일하지 않다.

단순하고 거칠게 이야기해 본다면, 필리핀은 성 평등적 토착사회에서 성 불평등적 근대사회로 이행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4] 이와 반대되는 흐름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구나 특히 유교전통을 가진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필리핀 사회에서 마주치는 성차의 현장들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인상을 준다.[5] 필

4) 오트너는 특정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순결을 통제하는 것은 위계적인 정치조직으로서 국가가 출현하는 과정과 관련된다고 본다.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 결합되어 진행된다. 즉 국가라는 위계적 정치조직의 출현과, 성이 위계적 사회질서 속에서 남성들 간의, 가족들 간의 또는 친족조직들 간의 매개자원으로 여겨지는 것, 그리고 여성이 '통제되어야 할' 위험한 존재라는 이데올로기가 생기면서 처녀성과 모성이 동시에 중요한 여성적 가치와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 등은 상호 관련 된다 (1996[1976]). 현재 필리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지역은 식민지배 이전 추방(chiefdom) 사회로 분류될 수 있으며, 16세기부터는 정복과 개종을 통한 피식민 국가로, 이어 근대독립국가와 개발도상국가로 편입되는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행과정상의 성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는 본문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5) 예를 들어 필리핀을 방문하고 경험한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 성차에 대해 대조적이고 모순적인 평들을 한다. 사업이나 학술교류를 위해 방문한 한국 남성 일반은 관공서나 회사, 대학에서 쉽게 마주치는 고위급 필리핀 여성들을 보고 필리핀이 (한국에 비해) 여성해방이 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시민운동 단체나 여성학 관련업무로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 여성들에게 있

리핀에서 남성과 여성은 공적 영역의 참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남녀 영역에 대한 상징적 구분도 뚜렷해 보이지만, 그 경계는 이분법에 명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남성들에게도,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특히 더, 성차의 "경계 넘나들기(border crossing)"가 허용되는 듯이 보인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 사회에서 미인대회 입상이나 타인을 돌보는 어머니 역할 모델이 여성의 공식 영역 진출이나 사회적 영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적하면서, 아름다움과 도덕성이라는 여성성 이미지가 권력자원화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산업사회 공사 영역구분 구도 내에서 공적 영역내 여성의 제한적 참여, 자본주의적 경제질서 하에서 성성(sexuality)의 상품화, 만성적으로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의 성폭력, 등과 같은 사회구조와 질서 하에서 아름다움과 도덕성의 이미지가 공적 영역에서의 영향력으로 권력자원화될 수 있는 여지는 역사 문화적인 중층구조 속에서 설명될 수 있어 보인다. 여성성 이미지와 권력관계에 대한 독해는 간단해 보이지 않으며, 애매함과 다차원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애매함과 다차원성의 성격은 제설혼합적(syncretic) 이라기 보다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사회세력들과 상징들 간의 경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무리해보고자 한다.

II. 아름다움

동남아 전통사회에서 권력은 특정 지위를 차지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기 보다는 자발적인 추종자들의 존재로 확인되는 정신적 영향력(spiritual potency)의 성격을 띠며, 남성성(virility)과 관련된다(Anderson 1972: 18). 필리핀에서 공식 권력은 공격적인 남성(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와 같이 집요하고 공격적인 기자), 군사 지휘관(Warlord: 피델 라모스[Fidel Ramos]와 같이 철저하고 전문적인 직업군인), 정력적인 남성(영화배우출신 에스트라다[Estrada]

어서 필리핀의 중하층 여성들은 관광 매매춘, 해외노동, 가내폭력 등의 희생자로 여겨진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러한 혼란은 계급적 범주에 의해 일차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이고 농촌 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임을 고려할 때, 성성(sexuality)에 대한 외부인의 (다시 예를 들어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평가와 견해는 더욱 혼란스럽다. 순결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거의 없다는 점, 필리핀이 관광 매매춘으로 악명을 날리는 동남아 국가 중 하나이지만, 현지 유흥업 종사 여성들에게서 술을 따르는 것과 '이차를 나가는 것'의 경계는 (한국에 비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 필리핀 남성들에게는 마쵸(macho) 이미지가 붙어있지만 자신의 의사를 여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부드러운 남자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점 ... .

가 대변하는 마쵸(macho) 기질의 남성대통령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권력을 표현하는 형용사인 "강하다(malakas: strong)"는 단순히 남성의 물리적 강함이나 정력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직업적 성취나 가문의 영향력과 결합된 이미지를 통해 추종자들을 끌어 모으는 영향력(potency)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여성의 "아름다움(maganda: beauty)"은 단순히 여성의 신체적 미나 성적 매력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개인의 지력이나 집안의 지위 등과 같은 요소와 결합하여 추종자들을 끌어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원으로서의) 이미지로 파악될 수 있다(Roces 1998). 창조신화에서 최초의 인간은 대나무에서 나온 남매간으로 상정되며, 각기 마간다(maganda)와 말라까스(malakas)라고 불려지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Go 1993: 24; Demetrio et al. 1991: 48-9)[6], 남성의 강함과 여성의 아름다움은 권력자원으로서 '성적으로 배타적인 자질'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complementary) 성적 자질'이다.[7] 즉 강함과 아름다움은 모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남성의 영향력은 강함으로부터, 여성의 영향력은 아름다움으로부터 발휘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관심과 의미부여의 맥락은 필리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는 미인대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인대회는 크게 지역사회에서 후원금 모금을 위해 개최하는 것과 외모 심사가 강조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학교나 교회, 또는 마을인데, 어떤 경우이든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 지역집단의 존재가 전제된다. 대회의 개최 목적은 학교나 교회 또는 마을 내의 시설물을 짓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여자와 남자를 함께 뽑으며,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모은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우승자는 공식적인 대관식 행사를 가지는데 그때 남자 당선자는 여자 당선자를 에스코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퍼레이드(parade)도 이어진다. 후보자는 당선 시 입을 드레스와 화장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기부금의 대부분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부유한 집안이 자녀일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부유한 친척을 양부모로

---

6) 필리핀 설화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창조의 예가 나오지만, 가장 오래되고 널리 퍼져있는 이야기는 "대나무에서 나온 남매"의 이야기로 루손(Luzon)과 비사야(Visaya), 민다나오(Mindanao) 지역에서 모두 전해져 내려온다(Demetrio et als 1991: 45). 이 신화는 필리핀은 물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라몬 오부산(Ramon Obusan) 민속무용단의 고정 레파토리이기도 하다. 2001년 6월 14일 방한하여 국악당에서 공연했던 라몬 오부산 민속무용단 첫 무대의 제목은 *'Malakas at Maganda'*로 이 신화의 내용을 다룬 것이었다.

7) 이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강하지 않으며, 여자는 아름답고 남자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강함과 아름다움 그 자체는 성 범주와 관련되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질이다.

둔 집안의 자녀일 수도 있고, 가난한 경우에는 (주로 친인척 성원들로 이루어진) 후보자를 지지하는 집단을 구성하여 자기 마을과 이웃마을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노래하면서(carolling), 사람들로부터 한두 푼씩 돈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결국 모금액 경쟁의 미인대회에서 평가되는 것은 참가자의 외모라기 보다는 참가자 집안의 위세와 능력 또는 후원자들을 동원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모의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들의 선정 자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외모 수준이 고려되며, 일단 선발되어 화장과 드레스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면 누구든지 평소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일상복을 입은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서도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다. 최종 우승자는 그의 젊음와 외모, 모금액을 마련한 집안의 영향력과 관심, 특별해 보이는 화장과 의상 등등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게 된다. 그리고 한동안 그의 당선과 그의 집안은 마을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와 그가 속했던 집안을 거론할 일이 생기게 되면, 언제 어느 대회에서 당선자를 내었는지 "족보 외우기"와도 비슷한 구전의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

이런 식의 미인대회는 "여왕 선발대회"(reynahan)라는 스페인어로 불리워지며 "미인 선발대회"(beauty contest)라는 영어 표현의 대회와는 구분된다.[8] 전자가 카톨릭 종교의 요소들을 차용하면서 보다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모금액에 대한 경쟁 없이 '여자'의 외모를 심사하는 서구적이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미인대회라고 할 수 있다. 후자와 같은 미인대회는 군(municipality) 축제(fiesta: festival) 이상의 영역에서부터 볼 수 있다. 필자의 연구 마을이 속해있던 나우한(Naujan) 군축제 때 개최된 1998년 "미스 나우한 선발대회"에는 14-16세의 여자아이들 8명이 참가하였다. 이 행사는 축제기간의 첫날 밤 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거행되었으며, 흔히 볼 수 있는 미인대회와 같은

8) 현지연구 기간 중 마을에서, 그럴듯한 "여왕 선발대회(*reynhan*)"은 열리지 않았다. 최소한, 성모마리아를 기리는 오월의 축제(Flores de Mayo)와 마을 수호성인을 기리는 마을 축제 때 두 번은 선발대회가 열리는 것이 관례이나, 당시 마을은 까삐딴(kapitan: captain, 마을 이장)을 둘러싸고 마을내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분위기였고, 관례적인 여왕 선발대회가 무산된 것은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와 밀접히 관련된다. 까삐딴이 속해있는 구역에서는 마닐라에 거주하는 사업가 한 명이 예배당 보수비용을 대고 대신 자신의 고향집에서 누이를 돌봐주는 질녀를 여왕으로 추대하기로 이야기 하였으나, 사람들은 보수비용을 받아 예배당을 고치고는 협조하지 않아 대관식은 거행되지 않았다. 한편 마을축제는 축제 위원장과 이장간의 불화로 아예 무산되었고, 중년여성들이 중심이 된 프로세션(procession)만 거행되었다. 그러나 현지연구를 마치고 돌아와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1999년의 마을 축제에서는 새로 선출된 마을교회 대표의 주도하에 교회 보수를 위한 모금액을 모으는 여왕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한편, 현지연구 기간 중 내가 마주친 이웃 마을의 노래팀은 세 팀이었는데 모두 학교기부금 마련을 위한 여왕선발대회를 위해 우리 마을을 방문한 경우였다.

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복장심사가 있었고, 중간 중간 참가자들의 춤과 고등학생들의 춤과 노래 등이 삽입되었다. 복장심사 중에는 스포츠 웨어 심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영복 심사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수영복 심사를 한 적도 있었으나 카톨릭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뷰 외에, 책상을 무대위로 가져다 놓고 "독립 100주년을 맞아 군 광장에 보니파치오(Bonifacio)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가 왜 국민영웅이며 영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써서 제출하는 논술시험이 행해지는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은 5분 정도로 짧았고 대답도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외모 이외에 재치나 지성, 여타의 재능이 (형식적이나마) 함께 강조되는 필리핀 미인대회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후보자 대부분은 -화려한 수벌의 옷과 구두, 화장 등 치장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었으며, 몇몇 지역유지 집안에서는 거의 항상 참가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 역시 후보자들의 집안에 관심이 컸으며, 어느 집안에서 언제언제 미스 나우한이 나왔었는지, 미스 나우한들 간의 친족간 계보를 따져보는 것 등이 대화주제로 등장한다. 미인대회는 지역유지층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변동의 역사를 가늠하게 하는 장이기도 한 것이다. 일례로 나우한 군이 속해있는 오리엔탈 민도로 주(Oriental Mindoro Province)의 주지사 부인은 미스 나우한 출신이며, 지역의 오래된 유지인 그녀의 집안에서는 거의 매년 미스 나우한 후보를 내고 있었는데, 그 해에는 그녀의 조카가 당선되었다.

중앙정치 영역에서 미인대회 출신의 여성 정치인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9] 미인대회 입상자나 모델, 영화배우와 같은 직업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10] 한편 마르코스의 독재에 저항하였던 신인민군(New People's Army)과 같은

9) 이멜다 마르코스는 1945년 타클로반(Tacloban) 시의 미인대회의 입상자(Rose)였으며, 1953년 마닐라(Manila) 시 미인대회의 입상자(Muse)였다. 그밖에도 딸락(Tarlac)의 주지사인 팅팅 코후앙코(Tingting Cojuangco)는 패션모델이었고,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지낸 엔릴레(Enrile)의 부인은 1956년 마닐라시 미인대회의 입상자이면서 패션모델이었고, 필리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로하스(Roxasa)의 부인은 1929년 마닐라 카니발(Manila Carnival)의 입상자였고, 1965년 미스 인터내셔널과 1969년 미스 유니버스 당선자들도, 비록 낙선하긴 하였지만, 상원의원에의 출마를 권고받았었고, .. 등등 다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Roces 1998: 172).

10) 최근 부패혐의로 실각한 전 대통령 에스트라다는 마초(macho)기질을 내세워 대중적 지지를 받는 경우인데, 그에게는 3명의 각기 다른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자식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이 그의 정치적 생명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를 지지하는 서민들의- 마닐라의 택시 운전사나 농촌 사람들의- 반응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가 잘 생기고 매력있는 영화배우이기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1998년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닐라의 한 시(City)에서 개최된 미인대회 당선자 소녀가 그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사건은 상당 기간 신문과 텔레비젼의 주목을 받았다. 당황했을 법한 에스트라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없다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식의 멋진(?) 답변을 하였고, 그 아이는

비판적인 정치 세력 속에서도 굵직한 미인대회의 수상자들을 찾아볼 수 있다.[11]

필리핀에서 아름다움이란 자질은 토착사회에서의 미에 대한 가치와 권력개념, 지역활동기금을 모으는 미인대회의 사회적 기능, 친족정치(kinship politics)와 같은 요인들이 상호관련된 맥락 속에 놓여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정치자원을 둘러싼 친족집단간의 또는 계급내의 경쟁을 의미하는 자원이다.

III. 도덕성

필리핀에서 권력 개념에 내포된 남성성은 상대를 제압하고 추종하도록 만드는 영향력의 원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통제가 전제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들이 제대로 통제되면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가 지닌 힘은 방탕, 호색, 허풍, 폭력 등과 같이 남성성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된다. 이때 종교성(religiosity)이나 신실함(piety)과 같은 도덕성(morality)이 여성적 이미지가 되는 것은, 남성적 영향력과 힘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악덕(vice)으로 여기는 것의 "반사 이미지(mirror image)"라고 볼 수 있다.

도덕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는 대개 두 가지 차원이 포함된다. 도덕성을 "특정 시대와 사회에 지배적인 윤리나 정의"와 같이 사회적 차원으로 해석할 때 이는 권력의 남성성과 조응한다. 그러나 도덕성을 "개인의 덕성이나 바른 품행"과 같이 개인적 자질로 해석할 때 이는 여성적 자질로 읽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이는 펠렛츠(Peletz)의 "성차의 공식적/ 실제적 재현(official/ practical representation of gender)"의 개념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12] 펠렛츠는 말레이시아의 너그리 섬빌란(Negri Sumbilan) 사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성(reason: akal)은 자신을 통제하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또한 열정(passion: nafsu)은 그렇지 못한 여성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지만, '실제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역으로 남성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며 여성은 그 반대로 인식된다는 점을, 식민화 및 근대화라는

결국 말라까냥(Malacañang)궁으로 가서 아버지를 대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인대회의 입상은 여성이 명예롭게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경력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11) 신인민군내 여성활동가는 흔히 젊고(물리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여대생들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태평양지역 미인대회 수상자인 넬리아 산쵸(Nelia Sancho)와 미스월드 참가자였던 마이타 고메즈(Maita Gomez)를 발견할 수 있다(Roces 1998: 180).

12) 이는 펠렛츠(Peletz 1996)가 부르디외(Bourdieu 1977)의 공식적/ 실제적 친족(official/ practical kinship) 개념을 변용한 것이다. 부르디외의 공식적 친족은 유사-사법적 형식주의 속에 명백히 성문화된 것이며 '지배적인(hegemonic)' 것이다. 반면 실제적 친족은 일상적 실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그의 표현으로는 실생활에서 '쓸모있는 사람(utility man)'들이다. 이 개념은 공식적으로는 부계인 사회에서 실제적으로는 모계나 외척과의 관계가 중시되어 관계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역사적 과정과 계급관계의 변화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식민화와 근대화 과정이 모계 전통에서 여자의 남자형제가 담당하던 부양과 책임을 가장인 남편의 역할로 공식화하면서, 부인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원이 없는 중하층의 남성들은 공식화된 부양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되어 보다 심한 도덕적 비난을 받게되는 점을 통해, 상징으로서의 남성성 이미지가 지니는 양면성과 모순, 맥락적 복잡성을 보여준다(Peletz 1996). 비슷하게, 필리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활동 영역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정치경제적 자원과 지위가 없는 남성들의 도덕성 달성을 더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영역인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윤리와 정의의 구현자가 되기는 힘들지만, 여성의 영역인 종교와 가족의 영역에서 덕성과 바른 품행을 구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잘 인식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여성의 도덕성은 종교적인 신실함과 타인을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모델과 관련된다. 우선 카톨릭이 실질적인 국가종교와 다름없는 필리핀에서 종교적 신실함이 여성성의 이미지를 띠는 것은 주목된다.[13] 네어(Neher 1996)가 세부 사람들(Cebuano) 361명을 대상으로 성역할 이미지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여성을 묘사하는 형용사 중에서 "종교적(religious)"이라는 항목에 수긍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 응답자의 95%와 남성 응답자의 94%로, 남녀 모두 거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남성을 종교적이라고 묘사하는 것에 수긍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 응답자의 72%와 남성 응답자의 57%로 남성들 스스로가 더 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비슷하게 여성을 "신뢰가 간다(faithful)"고 묘사하는 것에 수긍하는 사람의 비율은 여성의 91%와 남성의 86%로 대다수인데 반해, 남성을 신뢰가 간다고 묘사하는 것에 수긍한 사람의 비율은 여성의 38%와 남성의 40%로 아주 낮은 편이다(Neher 1996: 123).

여성의 종교성 이미지는 공식적인 교회활동을 여성들이 주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리핀의 대부분 농촌 마을은 교통이 불편하고 신부가 거주하지 않는 공소 지역이다. 태어나자마자 영세를 받고 성당 결혼식을 선호하며 스스로를 카톨릭 신자라고 말하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주일마다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

13) 필리핀은 카톨릭을 국가종교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가 법과 사회제도 전반에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다. 모든 공사 집회는 기도로 시작하며, 배와 비행기는 운항 전에 기도방송을 내보내며, 출생과 결혼, 사망과 같은 통과의례의 집행을 교회에서 담당하며, 가족법은 카톨릭 국민정서를 근거로 이혼을 불허하며, 1986년의 혁명은 다양한 종교적 기적의 징후를 통해 해석되고 힘을 얻었다. 종교가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될수록, 동남아 다른 이슬람 사회에서(또한 조선 중후기 유교사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활동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필리핀에서도 공식적인 교회활동에서는 남성이 리더십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토착 카톨릭(folk Catholicism)의 견지에서 본다면 일상적인 것 뿐 아니라 의례적인 종교활동까지도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가족 성원의 생일이나 기일, 마을 축제날,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일년에 서너 번 정도, 미사에 참석한다. 나아가 미사 이외의 교회 내 평신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드물어, 공식적인 교회활동은 종교성보다는 정치성이나 사회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외진 마을일 경우에는 교회조직의 지역 정치적 성격이 더욱 약화되므로, 중심지역에 비해 남성의 참여가 현저하게 낮아진다.[14] 현지연구 마을처럼 외지이고 공소교회를 가진 지역에서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는 일정 자체도 불규칙하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거행되는 미사에 여기에 참석하는 소수의 (성인인구의 3% 내외인 스무명 남짓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여성이다.

여성의 종교활동의 대부분은 공식 교회활동과의 연계 없이 마을 내에서, 가까운 구역 내에서, 친인척과 이웃관계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여성들은 부활절과 성탄절, 축제일에 마을 공동체의 프로세션(procession)을 주도하고, 오월에는 성모에게 꽃과 노래와 춤을 바치고, 부활절에는 예수 수난사(pasyon: passion)를 밤새워 노래하고, 이웃집을 돌아가며 묵주기도를 드리고, 망자의 기일에 기도의례를 치르고, 다양한 일상적 치유의례를 수행한다. 여성이 일상세계에서 종교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은 여성의 영역이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공식적 영역구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여성들의 종교활동은 개인의 신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복지를 위한 것이며, 친인척과 이웃간의 호혜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며, 마을공동체의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기도 하며, 특히 나이 많은 기혼여성들의 활동으로 여겨진다.

한편 여성의 영역인 가족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본질은 "돌봄(caring)"이며, 여성의 도덕성 이미지는 타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모델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을 넘어선 영역에서의 사회활동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의 농촌 마을에서는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영역을 메워주는 각종 정부, 비정부, 국제 단체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연구마을의 경우, 농촌 마을에서의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프로그램(Barangay Health Worker), 지역개발과 정치적 동원의 성격이 섞여있는 역대 주지사 부인이 조직한 단체활동(Rural Improvement Club), 국제단체의 아동후원 및 지역개발 활동(Plan International), 마을 성원간의 경제적 상호부조 활동(Cooperation과 CARD: Center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등의 다양한 사회조직 활동들이

14) 필리핀 농촌 교회에서 남성의 교회활동과 정치활동 간의 정적 관계에 대한 설명은 페티에라(Pertierra 1988)를 참조할 것.

있는데, 참가자의 대부분은 기혼여성들이다. 활동내용은 크게 사회복지혜택과 정치적 동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혼여성들의 공통적인 참여동기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외부세계의 후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5] 기혼여성들의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은 가족의 복지를 위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기에 공적 영역 내에 허용된 여성 영역이며, 사회적으로도 지지된다.

여성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이 여성의 공식 영역인 가족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되는 것은 여성의 종교적 신실함과 타인을 돌보는 어머니 역할의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도덕성 이미지는 공식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상징적 자원으로 사용된다. 여성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여성친족원들-부인, 어머니, 또는 딸들-은 각종 자선사업 파티나 종교단체 활동,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활동을 담당한다. 정치인과 추종자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내용은 어머니역할의 본질인 "돌봄"과 은유적 관계에 있다. 남성 정치인의 추종자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은 공식 정치활동에 버금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이러한 활동에 여성적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은 여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정치활동을 정당화한다. 정치인들의 출마지역(주로 출신지역)에서는 정치적 지지자로 동원되는 지역주민들의 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후원과 여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일상적으로 마련된다.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것은 여성 친족원들(주로 정치인의 부인)의 일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정치인의 여성들의 인지도와 인기유지는 정치인 남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연구마을이 속해있는 주에는 80년대 중반에 주지사의 부인이 만든 "농촌개선클럽(RIC: Rural Improvement Club)"이란 단체가 있었고, 여기서는 현금대부, 돼지키우기, 요리강습 등의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프로젝트의 실질적 수혜자는 주지사와 마을 사람들을 매개하는 소수의 여성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클럽이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여흥거리가 없는 마을 여자들을 들뜨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특히 선거 직전에는 여론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된다. 1998년 5월의 선거 직전에는 과거 미스 나우한이자 현 주지사 부인이 RIC 모임을 내세워서 대대적인 발렌타인 데이(Saint Valentine's Day) 파티를 개최하였

15) 정치적 동원모임에는 항상 추첨을 통한 선물주기 등이 포함될 뿐 아니며, 여러 소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정치인이나 정부관료들과 개인적으로 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개입되어 있다. 현지연구 마을의 논농사 구역에서 농민회의가 소집될 경우에도 참가자들의 반 수 정도는 기혼여성들이었다. 이중에는 남편이 없이 직접 농사를 짓는 여자들도 있지만 남편을 대신하여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시간에 맞추어 마을회관에 오기 힘들 경우 또는 시큰둥하여 나서지 않을 경우 부인들은 대신 와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가나 들어두기도 하고, 농약회사에서 홍보하는 약품선전을 듣고 나눠주는 마스크나 티셔츠, 달력 등을 챙겨간다.

다. 여기서는 무료 교통편과 무료 점심, 하라나(harana: serenade) 밴드와 가수, 복권 추첨과 선물 등이 제공되었으며, 주지사 부인은 무대에서 파티의 전 과정을 이끌었다. 가수에게 하라나를 부탁한 후 자신은 무대에 앉아 감상에 젖은 표정으로 듣기도 하고, 차차차(cha-cha) 춤을 추기도 하면서 대중들의 기분을 돋우고 맞춰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연출하였다. 마지막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남편인 주지사가 도착하였으며, 부인은, 마치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위신을 세워주듯이, 다소 극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위기를 과장되게 연기하며 그를 맞았다. 부인에 의해 사람들에게 소개된 주지사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호탕스러운 연설을 한 후, 대중들의 배웅을 받으며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것으로 파티는 막을 내렸다.

상층사회의 화려한 복장과 호사스런 파티도 고액의 입장료를 기반으로 한 자선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층부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칭송되며, 자선파티를 여는 것은 친족정치 집단 내 여주인의 주요 임무이기도 하다. 중앙정치에서의 여성정치인이나 정치인의 여성들은 거의가 다 예외 없이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원의원 배우자 모임(CSFI: Congressional Spouses Foundation Inc.)"은 공식적으로 여성과 아동복지, 자연재해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과거 독재에 대항하는 정치활동에서 수녀들은 신부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수녀들이야말로 필리핀 사회 내에서 가장 도덕성을 신뢰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스스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인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Roces 1998).[16]

필리핀에서 여성의 도덕성 이미지는 종교적 신실함과 타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모델을 통해 작동한다. 도덕성의 이미지는 농촌마을에서 기혼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것이나, 친족정치의 성격이 강한 공식 정치영역에서 남성 정치인의 지지대중을 모으고 관리하는 여성 친족원들의 각종 사회활동, 역으로 독재와 부패에 맞서 저항정치에 참여했던 수녀들과 여성활동가들의 이미지와도 폭넓게 관련된다. 이러한 여성의 도덕성 이미지는 공식적으로는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족과 사적 영역을 넘어선 공적 영역에서, 여성 활동을 정당화하고 나아

16) 정치에 무관심하던 젊은 수녀가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다룬 영화 "스텔라 엘 수녀(Sister Stella L 1984)"은 실제의 사례를 영화화 한 것으로 사회문제를 다루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영화로 호평을 받았고 1985년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작품이다. 여기서 주연을 맡아 열연한 여배우 빌마 산토스(Vilma Santos)는 1998년 선거에서 리빠(Lipa)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빌마 산토스는 여배우로서의 아름다움과 함께 급진적인 수녀연기를 통해 획득한 도덕적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내고 정치가로 변신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녀와 달리 비제도권의 급진적 저항세력에서 여성 이미지가 순교자와 창녀라는 모순된 형태로 나타나는 복잡한 성과 계급, 폭력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Hilsdon(1995), *Madonnas and Martyrs*, NSW: Allen & Unwin이 있다.

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

이상에서 기술된 현지연구 지역의 사례와 중앙정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여성성의 아름다움과 도덕성 이미지는 보다 복잡한 성차의 상징체계 내에 위치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내포된 성성은 맥락에 따라 부정적으로도 또 타인의 지배를 초래하는 것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여성은 성적 '유혹자'로 남성을 파멸시키거나,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그려지며, 향락산업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성적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여성의 도덕성 이미지가 기반하고 있는 비공식성으로 인해 여성스스로는 자기부정적인 희생자의 역할을 떠맡기도 한다. 즉 가족이나 친족집단, 나아가 지역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비공식적 활동은, 특정 맥락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자기규율과 자기통제, 자발적 희생을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의 역할 모델에 내포된 무성적(asexual) 이미지는, 가족관계 보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여성에게는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는 '나쁜' 여성이라는 도덕적 낙인을 찍고, 여성 일반에게는 그런 욕구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도 한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도덕성 이미지의 양가적 가치와 모순적 함의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후 4장과 5장에서 필리핀의 역사과정을 개괄하면서 이미지화된 여성성의 구성 맥락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Ⅳ. 토착사회의 성과 권력

초기 유럽인들의 방문기나 보고서들은 토착사회에서 아름다움과 도덕성이 배타적인 여성적 자질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점들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지배 이전 토착사회에서 여성은 마을 공동체의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babaylan: priestess)가 될 수 있었고, 재산 소유는 물론 자녀에게 이름을 물려줄 수도 있었으며 활발한 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lair et al. 1903-9: 155-7; Feliciano 1994: 548에서 재인용).

토착사회의 구조와 성차 인식에 대한 논의는, 사회조직 원리와 인간관계 가치의 기본구도를 보여주는 친족체계 속에서 권력과 성차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통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사회와 마찬가지로 양변(bilateral) 친족원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17] 필리핀의 토착사회에서 여성의

17) 이는 비단계적(nonunilineal)으로 혈통을 인식하면서 단계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협동적 혈통집단(descent group)을 구성하지 않는 친족원리이다. 여기서는 핵가족이 일차적인 사회집단으로 기능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데,[18] 이러한 점은 많은 부분 양변 친족원리의 성 평등성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친족호칭, 거주지 규정, 상속, 자녀의 성 선호, 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은 상업을 위시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여성의 성적 만족감이 중시되었으며, 혼인관계는 유연하여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을 보여준다(Reid 1988: 146-172).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양변과 유사한 공계의 원리와 여성의 지위에 대해 보다 분석적인 설명과 해석을 시도한다. 오트너(Ortner 1981)는 여성의 지위가 특정 사회내 위계체계의 원리와 밀접히 관련됨을 강조하면서, 폴리네시아에서부터 동남아와 남인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계-족내혼 유형(cognatic-endogamous type)"의 친족과 혼인조직을, 기존 친족연구에서 중심이 되었던 "부계-족외혼 유형(patrilineal exogamous type)"과 (조심스럽게) 비교한다. 두 유형의 차이는 상속(공계체계)과 지참금(부계체계)을 통한 여성재산권의 계승에서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혼인의 중요성에 있어서 대조를 보여준다. 전자에서 혼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불안정하다. 여성은 부인이나 어머니로서 보다는 친족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다. 반대로 후자에서는 혼인이 고도로 의례화되고 안정적이며, 부인과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더 강조된다. 여기서 혼인이 강조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친족적 정의와 대립되며, 부계에서 여성의 지위가 하락되는 것처럼 보이는 데, 이것은 친족관계와 혼인관계 본질적인 측면에 내재한 문제이다. 혼인에서 여성의 역할은 생명재생산(출산)과 주로 관련되는 여성성의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 친족구성원으로서의 부여받은 위치와 역할은 원칙적으로 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9]

하며, 개인적 친속(personal kindred) 이 발달한다. 즉 핵가족과 개인적 친속이 협동적 혈통집단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환경에의 적응과 조직화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에서 친족관계를 구성하는 원리는 양변(bilateral) 또는 공계(cognatic)로 표현되며, 두 표현 모두 특정 조상이 아니라 에고(ego)를 중심으로 친족관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즉 조상이 중심이 되어 혈통을 인식하는 원리와 구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양변이라는 표현에서는 에고의 친척관계 구성에 '부변과 모변이 동등하게' 고려된다는 점이 강조되며, 공계라는 표현에서는 에고의 친척관계가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되는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맺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국 두 표현 모두 동남아의 친족 원리를 설명하는 형용사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계혈통(cognatic descent)이라는 표현이 폴리네시아 지역의 혈통집단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혈통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양변친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Goodenough 1955; Murdock 1960; Freeman 1961; Eggan 1967; Keesing 1975; Ortner 1981; Hüsken et al. 1991).

18) "여성의 지위(status of women)"란 분명 정확히 정의하기 힘든 개념이다. 오트너는 여성의 '본성(nature)'에 대한 공식적인 문화 이데올로기, 남녀 관계의 질적 측면, 중요한 공식역할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여성행동에 대한 남성통제의 정도를 여성의 지위를 평가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제시한다(Ortner 1981: 394).

19) 친족원리는 부계이건, 모계이건, 비단계이건 간에 동일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자녀 모두에게

에링턴(Errington)은 동남아의 양변 친족원리와 권력개념, 그리고 여성의 지위 간의 관계를, 도서부 동남아의 토착문화에서는 성 구분이 상대적으로 덜 확연하다는 사실과 관련짓는다. 이 지역에서 남녀의 대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체적 표시(생식기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성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 구분은 고유한 '자아'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신체와 인간 정체성과의 관계에서 남녀는 보다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는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성 차이(sexual difference)는 서구와는 상당히 다른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다.[20] 앤더슨(Anderson)이 자바의 토착권력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보여주듯이, 이 지역에서의 권력은 잠재적 영향력(potency)으로 더 잘 정의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성보다는 지위의 차이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시된다. 또한 오트너도 지적하고 있듯이, 동남아 지역 내에서의 성 차이(gender difference)는 부부관계 만큼이나 형제자매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두 관계는 종종 서로 변형된 것으로 여겨진다.[21]

한편, 양변 원리는 자아를 중심으로 모변과 부변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친족 관계망의 인식 체계로 작용하며, (단계 혈통집단에서처럼) 조상을 중심으로 한정적인 혈통집단을 구성하고 여기에 기반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경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정치적 권위의 기반이 되기에 애매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Wolters 1982: 4-5). 다른 동남아 사회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토착사회에서 지도자는 의례나 농사, 상업, 군사적 목적으로 추종자가 필요할 경우 광범위한 친족 관계망을 통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동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는 공동체 '조상'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Rafael 1988: 14). 결과적으로 토착 사회에서 정치는 항구적인 친족관계의 재구성과 혈통에 대한 재창조, 권위의 중심과 지역적 경계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를 수반한다(Wolters 1982: 17-18). 즉 필리핀 토착사회에서 권력의 획득과 유지는 경제적 지원이나 부채관계를 통해 (대부분은 이미 친족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

동일한 성원권을 부여한다. 부계이면서 부거제인 경우에 여자자녀의 성원권이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쪽 친족집단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혼인관계가 여성의 출생 친족관계보다 더 중요시되기에 여성의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 도서부 동남아 지역에서 생물학적 성 구분은 서구와 같이 명확한 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경우도 동성애자는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homosexual)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여자의 마음을 가진(*pusong babae*)' 여자 같은 남자(effeminate man)(*bakla, binabae*)" 또는 "남자 같은 여자(tomboy, *binalaki*)"로, 기질의 차이와 전도로 인식된다(Tan 1994: 88-90; Cannell 1999: 214).

21) 각주6)에서 언급한 창조신화는 대나무에서 나온 최초의 인간이 남매관계였으나 결혼하여 자손을 낳았고, 이들이 각기 귀족, 평민, 노예라는 저지대 필리핀인들뿐 아니라, 산악 부족민과 외국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식으로 전개된다(Demetrio et al. 1991: 45). 필리핀 토착사회의 신분질서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주 22)를 참조할 것.

중에서)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능하였다.[22]

양변 친족원리와 이와 관련된 성 평등적인 친족관계, 상대적으로 덜 차별적인 성 인식, 형제자매 관계의 변형으로 인식되는 (동반자적) 부부관계, 추종자 모으기로서의 권력개념은 현재 필리핀의 성과 권력 관계의 애매함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토착적 문화요소들이다. 토착사회에서 아름다움은 남녀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던 가치였으며,[23] 영혼의 세계와 인간을 매개하는 종교적 능력과 역할은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지만,[24] 카톨릭의 신실함이나 모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도덕성의 여성적 이미지는 특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도덕성을 가족과 친족, 그리고 공동체내 지도자와 추종자간 호혜적 의무관계를 지키는 사회적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페인의 지배와 미국의 영향은 이러한 토착 문화를 기저로 하여 구축된 보다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성차 이미지의 체계를 구성하는 역사적 맥락이다.

---

22) 서구의 식민세력이 들어오기 전 동남아는 해상무역 기지를 중심으로 한 고대왕국이나 술탄제(sultanate)가 존재하였으나, 많은 지역은 화전이나 수도작, 어로 등을 경제양식으로 하는 추방제(chiefdom)사회였다. 이는 채무노예제(bondage system)에 기반한 계급사회로 (고대 로마나 개척기 미국 등지의 노예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평등하였다. 추장의 지위는 세습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었으며, 토지도 상징적으로는 추장의 소유였으나 평민층과 노예층은 물론 외부인에게까지도 사용권이 보장되어 있었다. 노예층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노역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었다. 세 계급간의 신분적 성격도 애매하여 추장도 때로는 부채로 인해 노예가 될 수 있었으며, 노예도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든가 하여 추장이 될 수 있었다(Reid 1988: 129-136).
동남아 지역 중에서도 고대왕국의 영향권 밖에 있던 필리핀에서, 이러한 사회조직적 특징은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 스페인이 도착했을 당시 필리핀의 기본 사회조직은 바랑가이(barangay: '배'[舟]라는 뜻으로 한 배를 타고 도착한 집단으로부터 형성된 혈연·지역 공동체임을 의미한다)였는데, 루손(Luzon)과 비사야(Visaya) 지역의 경우 바랑가이 내 사회계급은 (다른 동남아지역 대부분의 토착사회와 유사하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추장과 그의 가까운 친척들로 이루어진 특권층, 추장의 평민 아내나 노예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녀들과 계약이 만료된 노예들로 구성된 평민층, 그리고 매매노예나 부채노예, 전쟁포로 등으로 구성된 노예층이다(Scott 1994: 127-137, 217-229).

23) 토착시대에 신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주술적 힘을 보여주고, 초월적 영혼을 담기위한 자연적 수단으로 여겨졌고, 문신, 치아염색과 갈기, 머리를 기르는 것이 선호되었다. 자아의 상징이자 표현으로 여겨진 머리모양에서는 남녀차이 보다 연령등급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널리 알려진 사롱(sarong: 허리나 겨드랑이에 둘러입는 긴 천 모양의 옷)은 입는 법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옷 자체로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Reid 1988: 75-84; Blanc-Szanton 1990: 364-365). 오늘날 필리핀에서는 여자들 못지 않게 남자들도 (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상징으로서) 매니큐어를 칠하고 향수 뿌리는 것에 신경을 쓴다.

24) 필리핀에서 영혼과 인간을 매개하는 종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바바일란(*babaylan*)이라고 불렸는데 주로 여자들이었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여자의 복장을 하였다(Blanc-Szanton 1990; Andaya 1994; Salazar 1996).

V. 스페인과 미국 문화의 영향

스페인과 미국 문화가 성성 이미지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는 단순명료하게 정리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스페인 지배로 도입된 카톨릭 가치 중 토착적 성문화와 부합하기 힘들어 보이는 순결의 가치와 성모의 위상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대중 문화에서의 성성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논의들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도덕성이라는 이미지와 관련된 여성성의 복잡한 사회 역사적 구성을 제시함으로써, 아름다움과 도덕성이 공식 영역에서 권력자원화 될 수 있는 여지와 함께 그 한계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 순결의 가치와 성모의 위치

1521년 마젤란의 세부 상륙으로 시작되는 스페인과의 접촉과 이어지는 식민지배는, 스페인 관습과 법의 도입 그리고 카톨릭으로의 개종을 통해, 필리핀 사회에 성 차별적인 가부장적 가치체계와 제도가 도입되는 역사적 계기가 된다. 그러나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지리적 분산성과 멕시코와 중국간의 중개무역 거점으로서 필리핀에게 주어진 이등 식민지의 지위는, 스페인의 식민통치가 상당히 느슨한 것이었으며 행정력보다 교회의 영향력이 더 직접적이고 전반적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19세기 들어 상업농 정책이 시행되면서야 비로소 스페인의 행정력은 필리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것도 여전히 지역적 그리고 계급적으로 불균등한 것이었다. 스페인지배의 가부장적 영향은 새로 등장한 교육체계와 법질서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교육은 수도원을 통해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여성에 대한 교육은 1863년에 가서야 그것도 주요 도시에서만, 최소한의 읽기와 쓰기 같은 기본교육과 가사관련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시민법(1889년)과 결혼법(1870년)에서는 가부장이 부인과 다른 가족성원들에 대해 권위와 통솔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시되었다 (Feliciano 1994: 548-9).

현지민들에게 여성의 순결과 가내영역에서의 의무와 복종을 중시하는 카톨릭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카톨릭으로의 "순조로우면서도 급속한 개종과정"은 스페인 사제와 필리핀 토착민들 간의, 즉 두 문화권간의 "일종의 상호 오역과정"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필리핀인들의 토착 영혼과 신들은 개종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하나님 아버지(Ama: God Father)와 여타의 성인들이 가장 믿을만한 수호신으로서, 수정된 토착적 영혼들의 체계 내

로 포섭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지민들은 구원의 의미나 천국와 지옥의 차이, 죄와 참회, 현세에 대한 내세의 도덕적 우월성 등을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한 듯이 보이지 않는다(Rafael 1988).

순결의 가치와 성모의 위치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 역시 어느 정도 상호 오역의 영역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600년대 초 따갈로그어(Tagalog)로 인쇄되어 나온 강론집은 도미니크회 수도사인 블랑카(Fray Francisco Blancas)가, 당시 현지민 남녀 모두에게 순결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에서,[25] 순결이 중요한 가치이며 마리아(Maria)가 출산을 하였지만 여전히 처녀이고 또 그러면서 이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보여준다. 성모가 처녀이면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처녀성을 유지했다는 가르침은 현지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다. 이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기적으로 설명한 것은 순결과 처녀성이 (토착문화의 맥락에서) 힘(potency)을 획득할 수 있는 자질로 오역되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Javellana 1994).[26] 결국 종교적 순결함의 가치와 성모의 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강론의 이야기들(narratives)이 처녀성을 신실함이나 진실함과 같은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로 받아들여 '개종'을 종결시켰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순결은 전능함의 의미로, 권력의 속성으로 이해(오해) 되었을 가능성

25) 토착문화에서 혼전순결이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으며, 동정(celebacy)이란 오히려 메마름과 불모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더 관련되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한 파트너에게는 신실할 것이 요구되었기에, 간통은 흔히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이혼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새로운 파트너를 다시 만나 재혼하는 것이 선호되었다(Reid 1988: 146-158).

26) 우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진흙탕을 걸어가 더럽혀지는 것으로, 참회는 이러한 더럽힘을 씻어내는 것으로 비유되었는데, 진흙탕 길을 지나다니는 것이 일상생활의 일부인 현지민들에게 이러한 비유적 이야기를 통해 카톨릭의 죄의식을 내면화하기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모는 처녀상태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에게 젖을 먹여 키웠다는 점이라도 강조되어야 현지민들에게 신의 어머니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처녀이면서도 젖이 나왔다는 사실은 신의 은총과 기적을 동원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성모의 처녀성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부는, 마리아는 마치 "태양이 햇빛을 방출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듯이, 그리고 나무에 새움이 트더라도 가지에는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듯이" 출산을 통해서 아무런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목표는 우선 (성모의) 처녀성이란 (필리핀의 토착적 의미에서처럼) 불모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옥한 상태임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여성 선지자인 안나(Anna)에 대해, 그녀는 (현지민들과는 달리) 결혼 전까지 처녀였으며 7년간의 결혼생활 후 사별한 뒤에도 줄곧 혼자 살면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안나의 이야기 속에서 처녀성은 도덕적 가치와 연결되기보다는 필리핀 전통 영매인 바바일란(babaylan)의 영적인 힘과 더 관련될 수 있었다. 결국 안나는 이국의 카톨릭 선지자라기 보다는 바바일란으로 오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결혼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가나(Cana)의 혼인피로연 이야기에서 예수가 물을 술로 바꾼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힘은, 성모처럼 그 역시 동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가 기적을 보인 이유는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이 그가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만을 선호하고 기혼자들은 추종자(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오해할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Javellana 1994).

이 커 보인다.

그리고 식민통치의 말기까지도 식민지배정책의 영향력과 카톨릭 가르침의 지역적, 계급적 침투는 상당히 불균등한 것이었으며, 가부장적 가치와 질서는 계급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성 평등적인 토착 문화의 층위에 더하여, 받아들여졌다. 필리핀의 개종자들에게 여성의 혼전 순결은 식민모국 문화를 모방하는 상층계급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렇지만 상층계급의 경우도 스페인이 속해있는 지중해 지역 카톨릭 문화권과 달리, 여성의 성성이 가문을 대표하는 남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가치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다. 성모 마리아라는 상징적 인물과 가부장적 사회질서의 도입은 스페인에서처럼 성가족(Holy Family)와 실제 가족간의 유비(analogy)를 통해 어머니로서의 여성 정체성을 강화시켰지만, 이 역시 토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측면을 보여준다 (Blanc-Szanton 1990: 347).

스페인의 지배가 종교를 통한, 느슨하고, 오래 지속된 식민통치였다는 점은 새로운 종교가치와 식민적 질서가 토착적 문화전통과 제설혼합적으로 섞이면서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이 새로운 종교가치와 식민적 질서는 토착문화와 섞이면서 새로이 전통이란 이름을 얻게된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공연예술 분야에서 전통무용으로 분류되는 장르는, 산악지대 부족들(tribes)의 주술적 동작에서부터, 저지대 농민들의 대나무 춤, 스페인 상층계급으로부터 들어온 귀족풍의 왈츠와 폴카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즉 필리핀에서 "전통"이란 개념에는 질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전혀 다른 두 국면의 요소들, (보다) 토착적 전통과 (보다) 식민지적 전통이 한데 묶여있다는 점에서 제설혼합적인 함의가 짙게 담겨 있다. 한편 미국의 영향은 전통과 구분되는 명백한 "근대"의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2. 향락적 성성과 이분화된 성 이미지

1898년 필리핀은 미국에게 점령되었고, 1946년 독립 이후에도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필리핀에게 미국은 근대로 이끌어 주는 "믿음직한 백인 맏형(Big White Brother)"으로, 미국에게 필리핀은 아시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전시장(showcase of democracy)"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남녀 모두에게 무상 초등교육을 제공하였고, 과거 수도원 전통의 대학과 달리 국립대학은 여성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다. 여성들은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고 제한적으로나마 임금노동시장에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의 지배는 결과적으로 스페인 시기에 차단되었던 그리고 새로 형성되는 공식영역인, 교육

과 정치, 산업 부문에 여성이 진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와 결과는 역시 복합적이다. 우선, 다시 한번 더 계급적 차이에 대해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도식적인 대비이기는 하나, 스페인 시기 가부장적 영향력은 식민모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지배세력의 제도변화에 더 민감한 상층계급에 국한하여 발휘되었다면, 이제 상층계급의 여성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전근대적 가치와 새로운 산업구조의 제약과 혜택 속에서, 미국의 근대적 여성해방이라는 긍정적 영향력을 보다 더 향유하게 된 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하층계급의 여성은 이러한 변화와 해방의 과정으로부터 별반 이득을 볼 것이 없었으며, "20세기 제3세계 유형의 발전"에 의해 생계를 위협받으며 "삼중고"를 감래해야 하는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Blanc-Szanton 1990: 371).

전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사 영역 분리가 강화되었고, 대중교육이나 경제참여 등 근대국가의 제반 정책과 제도들은 이러한 공사분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가내영역에서 여성의 역할과 책임은 사회규범으로 자리잡았고, 상층계급에 국한되던 미혼여성의 성성과 활동성에 대한 통제는 중하층 계급으로까지 확대 강화되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활동성과 자율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층계급의 여성들은 식모를 고용함으로써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었기에 별 갈등 없이 서구 부르조아 전업주부의 역할과 가족사업이나 교수,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에 진출할 수 있었고, 서구의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필리핀의 성 평등적 토착적 전통을 상기하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반면 하층계급의 여성들은 중산층 전업주부를 선망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경제현장으로 나서야 했다. 이들은 공장노동자, 사무원과 판매원, 소규모 장사, 각종 서비스직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고, 이들에게 서구의 여성주의는 현실감 없는 주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Eviota 1992).

이러한 현실은 근대의 이념이란 남녀차별을 지양하지만, 근대의 제도와 체계 유지는 남녀의 영역 구분을 전제로 한다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순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를 통해 잠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인간관계와 활동은 가족 내로 제한되면서, 어머니로서 인내와 희생, 타인 돌보기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도덕성으로 자리잡으면서, 근대 이념이 내포하고 있는 성차의 모순은 잠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의 이념에 자리한 성차의 모순은 상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적 성성을 통해 극단적으로 이미지화된다. 텔레비젼과 라디오, 잡지,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서 새로 등장하는 이미지는 쾌락을 쫓고 즐기는 여성의 향락적 성성이다. 대중매체는 가

정주부와 어머니 역할은 선하고 좋으며, 가족 밖을 벗어난 여성들은 사치스럽고 방종한 성생활을 하며 남성을 유혹하고, 비주체적이어서 성적 대상으로 희생되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파국을 자초하는 식의 스테레오 타입이 그려지면서 성성에 대한 이분법적 구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족 안/밖에서의 여성은 선/악의 대조적 가치와 다양한 형태로 결부되면서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또한 강간과 성폭력이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도 피해자인 여성의 성성에 대한 대중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려진다(Cruz 1988: 8-9).[27]

이는 비단 필리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필리핀의 대중매체에서의 성성 이미지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필리핀의 영화와 방송 및 모든 대중 매체의 시스템은 미국의 시스템을 들여 온 것이며, 콘텐츠 자체도 미국의 것을 그대로 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 콘텐츠의 주 수요층은 영어에 능한 상층 계급에 국한되며, 보다 대중적으로는 미국 콘텐츠를 모방하여 필리핀화한 이미지가 소비된다. 그런데, 미국의 시스템과 콘텐츠에 대한 모방과 응용으로 나타나는 대중매체에서, 스테레오 타입화된 성모/창녀의 대비나 남/녀의 대비적 역할모델은 현실적 상황과 너무나 큰 격차를 보여주며 다분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재현된다. 필리핀의 대중매체가 수입된 미국 대중문화의 물질적이고 성차별적 요소를 자국의 맥락 속에서 재현하는 방식은, 자국에서 소화 가능하면서 시선을 끌 수 있는 미국의 과거 스타일이나 대중적 양식을 주로 채택하고, 성적 육체적 폭력 장면을 과다하게 넣는 것이다. 대중매체에서 성과 폭력을 다루는 고전적 단순함과 자극성은 사회적 불만을 감각적으로 해소하려는 수동적인 대중욕구를 만족시켜준다.[28] 이런 점은 중하층들이 보는 따갈로그(Tagalog) 채널과 영화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계급적 함의를 가진다.

따갈로그 대중매체 중 서사(narrative)의 비중이 큰 영화에 한정하여 좀 더 살펴보면, "성모와 창녀"로 대변되는 향락적 성성과 이분화된 성 이미지에서 여성 역할모델에 대한 선과 악의 대비는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으며 서사를 지속시키는 기본 구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남성을 통한 사회질서의 회복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남성의 악덕과 여성의 도덕성을 대비시키는 구도가 빈번히 사용되며, 여성의 성적 희생에는 도덕적 명분이 따르고, 성적 희생자인 여성이 적극적으로 복수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기도 하고, 성의 상품화는 남

27) 라디오, 텔레비젼, 잡지, 영화 등에서 나타난 필리핀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Cruz 1988)을 참조할 것.

28) 이에 마르코스 독재정권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포르노그라피적 대중매체를 양산했다는 설명이 제기된다. 당시 정치적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대신 비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영역에서 허용되었고 1980년대 초부터는 필리핀 대중매체에서 포르노그라피적 내용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한다(Cruz 1988: 114-118).

성의 성적 서비스를 통해서도 고발되고, 창녀는 성모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기도 한다. 29) 이런 식의 이분법적 성성 구도의 해체나 넘나들기는 필리핀의 따갈로그 영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 영화 속의 여성 캐릭터들은 보다 더 유혹에 빠졌다가도 다시 이를 벗어나 도덕적인 이미지로 변신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강하거나 도덕적인 여성 캐릭터들도 강간을 당하는데, 이 때 그녀의 도덕성은 훼손되지 않고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폭력이 악의 세력을 그리는데도, 또는 악을 응징하는 세력을 그리는데도 사용되듯이, 여성의 성적 매력은 쾌락을 쫓고 음모를 꾸미는 악녀의 이미지로도 사용되지만 도덕적 숭고함을 완성시키는 성녀의 이미지로도 사용된다.

미국의 영향으로 필리핀 대중문화에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향락적 성성과 이분화된 성 이미지의 소재가 과도하게 도입되었고, 필리핀 사회의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이런 소재를 보다 자극적이고 포르노그래피적인 방식으로 다루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락적 성을 읽어내는 필리핀 대중문화의 방식은 이분법의 경계넘기에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Ⅵ. 맺는말

이 글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도덕성 이미지가 필리핀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역사문화적 맥락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통해, 필리핀 사회에서 성차와 권력 관계의 일면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성차는 사회적 맥락 속에

29) 예를 들어 남자들 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복수는 간혹 그의 여자(부인, 여자친구, 딸 등)를 강간하는 것으로, 즉 여성을 희생시킴으로써 '남자들 간의' 그러므로 '사회적인' 악덕의 존재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식으로 나타나는데 (영화 Cain at Abel 1982, 영화 Orapronobis 1989), 여기서 남성의 폭력과 여성의 강간당함의 대비는 결과적으로 남성의 악덕과 여성의 도덕성이라는 성적 이미지의 대비를 강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영화 속에서 희생당하는 여성들은, 가족부양자나 (유흥업소 여성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화들) 신의 메신저와 같이(영화 Himala 1982), 명분있는 가치를 위해 희생되는 것으로 그려지며, 강간의 피해자로 그려질 때도 소리 없이 당하고 혼자서 침묵하는 모습으로, 즉 극도의 소극성이나 자기학대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보다 살인으로 복수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영화 Sex Object 1987, 영화 Brutal 1980). 또한 향락적 성성을 고발하는 서사의 주제로 동성애 매매춘에 종사하는 남성의 고난한 인생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와 있기도 하며 (영화 Macho Dancer 1989), 매매춘 여성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유사영웅적 서사가 그려지기도 한다 (영화 Bomba Queen 1985). 여기서 인용된 영화 중 Himala와 Macho Dancer는 필리핀 100주년 기념 영화제에서 상영된 평가가 좋은 작품이며, 영화 Sex Object는 미디아워치(Mediawatch)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대생들이 무작위로 골라 본 비디오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인 대중영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는 결국 살인으로 복수하는 데, 영화의 의도는 물론 여성의 주체성이 아니라 섹스와 폭력을 삽입하기 위한 플롯 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강간의 피해자인 여성이 악역으로라도 스스로 복수하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는 (다시 또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적 대상-피해자-수동성으로 연결되는 자기부정의 과정이 진행되기 보다, 수동성과 적극성의 대조적 이미지가 결합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서 개인의 행위자원으로 경쟁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권력의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으나, 권력과의 관계가 상징적이라는 점은 해석의 명료함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오늘날 여성에게 요구되는 아름다움과 도덕성의 이미지와 내용이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차별적 성적 자질이자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필리핀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화적 함의는 사회마다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은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성의 자질로, 그럼으로 여성과 가까운 남성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어야 하는 자질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도덕성 또한 성적으로 불평등한 위계구조 속에서 약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보상적 그러므로 적응적 가치일 수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위험한 성이라는 상징과 '직접' 결부되지 않으며,[30] 여성의 도덕성은 사회적 활동과 '배치'되는 가치로 평가하기 힘들어 보인다.[31]

여성성의 이미지로서 아름다움과 도덕성의 문화적 의미는 여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순결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며, 순결의 추구를 체화시키는 성성의 통제는 여성의 활동성에 대한 사회적 허용 여부와 관련된다. 필리핀에서 여성오염에 대한 토착적 금기사항은 찾아보기 힘들며, 순결과 오염을 대비하는 상징들도 발달해있지 않다. 필리핀 사회에서 아름다움과 도덕성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질로 사용된다는 점은 지난 4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진행된 식민화와 근대화 프로젝트의 과정과 성격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다. "불완전한 개종"이나 "공사영역 구분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과 같은 필리핀의 종교문화와 정치문화에 대한 표현들은, 필리핀의 토착문화에서 나타나는 성과 권력에 대한

30) 서양에서의 마녀가 독신이거나 과부이면서 아직도 젊고 예쁜 여자들, 즉 성성이 통제되지 않는 여자들이었고, 한국에서의 구미호는 남성 나그네를 유혹하는 예쁘고 젊은 여자이며, 대부분의 귀신 역시 젊고 예쁜 여자들로 (그러나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러 헤친 채 피를 흘려서 공포감을 줄 뿐으로) 그려진다면, 필리핀에서 흔히 여자로 묘사되는 흡혈귀(*aswang*)는 성격이 괴팍하고 외모도 호감을 주지 않는 중년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혼자 사는 여자일 필요도 없다.

31) 성별 공사 영역분리가 확고한 사회에서 여성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은 많은 경우 가내영역을 지키는 한도에서만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또한 역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성적 차별이 있다하더라도 가내영역을 지켜내는 여성이 결국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를 들어 유교윤리가 지배적인 사대부 집안에서 일부종사하고 자녀를 출세시킨 어머니는 도덕적인 여성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 반면 몰락한 집안의 부를 다시 일으키거나 남편의 방탕함을 깨닫게 해주는 등, 가내영역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기지를 발휘해야만 하며, 그 일이 성공했을 때에도 (도덕적이라기 보다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구전되는 이야기 속에서만 비공식적으로 평가받을 뿐이다. 즉, 여성의 활동성이 지나치게 가내영역을 넘어서면 설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활동의 의도 및 성과와는 상관없이 도덕성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반면 필리핀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이미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내영역을 넘어서는 활동성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식이 현재에도 유의미한 문화자원임을 보여준다.

현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도덕성이 권력자원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이는 토착-전통-근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중층 구조 속에서 구성된 성차의 의미체계와 관련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두 이미지는 공사영역 구분과 계급분화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 규정되고 있는, 성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와 의미체계의 한 부분이며 긍정적으로 특화된 여성성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대가 규정하는 성별 영역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을 지지하는 상징으로 이러한 여성성 이미지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양변친족체계와 관련된 토착적인 성 평등적 인식과 추종자 모으기로서의 권력개념이, 가부장적 종교와 새로운 공사영역의 구분이라는 외래체계의 도입과정 속에서, 그 체계에 내재한 성적 상징을 끊임없이 재해석해내는 문화자원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도덕성 이미지는 다음 두 가지의 점에서 여성의 권력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첫째, 필리핀 사회에서 외래문화에 의해 여성성으로 규정된 자질들은 완벽하게 성 배타적으로 적용되지도 또한 성차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금기적 상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자질들은 여성 개인이 위치한 다차원적인 사회적 한계들-가족, 친족집단, 계급범주,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다차원적 구도-속에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제 용어 : 필리핀, 여성, 아름다움, 도덕성, 성차, 권력

참고문헌

월터스, 수잔나 D · 김현미 외 역. 1999(1995).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여성주의 문화이론을 향하여』, 또 하나의 문화

Andaya, Barbara W. 1994. "The Changing Religious Role of Women in Pre-modern South East Asia." *South East Asia Research* 2, 2.

Anderson, Benedict. 1972. "The Idea of Power in Javanese Culture." in C. Holt. (ed.). *Culture and Politic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 Press.

Atkinson, Jane Monnig and Shelly Errington. (eds.). 1990. *Power and Differences: Gender in Island South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lair, E.H. and J.A. Robertson, 1903-9. *The Philippine islands, 1493-1898*. 55 volumes. Cleveland: A. H. Clark.

Blanc-Szanton, Cristina, 1990. "Collision of Cultures: Historical Reformations of Gender in the Lowland Visayas, Philippines." in J. M. Atkinson and S. Errington. (eds.). *Power and Differences: Gender in Island Southeast Asia*.

Cannell, Fenella. 1999. *Power and Intimacy in the Christian Philippin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uz, Pennie S. A. 1988. *Images of Women in Philippine Media: from Virgin to Vamp*. M. M.: Asian Social Institute.

Demetrio, Francisco, S.J. et als. 1991. *The Soul Book: Introduction to Philippine Pagan Religion*. Q.C.: GCF Books.

Eggan, Fred. 1967. "Some Aspects of Bilateral Social Systems in the Northern Philippines." Mario D. Zamora. (ed.). *Studies in Philippine Anthropology: In honor of H. Otley Beyer*. Q.C.: Alemar Phoenix.

English, Leo James, C. Ss. R. 1986. *Tagalog-English Dictionary*. M.M.: National Book Store.

Errington, Shelly, 1990. "Recasting Sex, Gender, and Power: A Theoretical and Regional Overview." in J. M. Atkinson and S. Errington. (eds.). *Power and Differences: Gender in Island South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viota, Elizabeth Uy. 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Gender: Women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the Philippines*.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Feliciano, Myrna S, 1994. "Law, Gender, and the Family in the Philippines." *Law & Society*, 28, 3: 547-560.

Freeman, J.D. 1961. "On the Concept of the Kindred." *Journals of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91, 192-220.

Go, Stella P. 1993. *The Filipino Family in the Eighties*.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Goodenough, W.H. 1955. "A Problem in Malayo-Polynesian Social Organiz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57, 71-83.

Hüsken, Frans and Jeremy Kemp. (eds.). 1991. *Cognation and Social Organization in Southeast Asia*. Leiden: KITLV Press.

Javellana, René B., S.J. 1994. "Imagining Virginity." in R. B. Javellana, S.J. (ed.). *Morality, Religion and the Filipino*.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Keesing, Roger. 1975. *Kin Groups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NSO(National Statistics Office). 1995. *Philippine Yearbook 1995*. Manila: NSO.

Ong, Aihwa and Michael G. Peletz. (eds.). 1995. *Bewitching Women, Pious Men: Gender and Body Politics in Southeast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rtner, Sherry B. 1981. "Gender and Sexuality in Hierarchical Societies: The Case of Polynesia and Some Comparative Implications," in S. Ortner and H. Whitehead. (eds.). *Sexual Meanings: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tner, Sherry B. 1996(1976). "The Virgin and the State," in S. Ortner. *Making Gender: The Politics and Erotics of Culture*. Boston: Beacon Press.

Ortner, Sherry B. 1996(1990). "Gender Hegemonies," in S. Ortner. *Making Gender: The Politics and Erotics of Culture*. Boston: Beacon Press.

Peletz, Michael G. 1995. "Neither Reasonable nor Responsible." in A. Ong and M. Peletz. (eds.). *Bewitching Women, Pious Men: Gender and Body Politics in Southeast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afael, Vicente. L. 1988. *Contracting Colonialism: Translation and Christian Conversion in Tagalog Society under Early Spanish Rule*.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Reid, Anthony.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 1: The Lands below the Win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Roces, Mina. 1998. *Women, Power, and Kinship Politics: Female Power in Post-War Philippines*. Westport: Praeger.

Salazar, Zeus. 1996. "Ang Babaylan sa Kasaysayan ng Pilipinas(필리핀 역사 속의 바바일란)." in University Center for Women's Studies. (ed.). *Women's Role in Philippine History: Selected Essays, 2nd ed.*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Scott, Joan W. 1999. "Some More Reflection on Gender and Politics", in J. W.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cott, William H. 1994. *Barangay: Sixteenth-Century Philippine Culture and Society*.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Tan, Michael. 1994. "From Bakla to Gay: Shifting Gender Identities and Sexual Behaviors in the Philippines." in J. Gagnon, et. al. (eds.). *Conceiving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Van Esterik, Penny. (ed.). 1982, 1996 (rev. ed.). *Women of Southeast Asia*. Dekalb, Ill.: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Ward, Barbara. (ed.). 1963. *Women in the New Asia: The Changing Social Roles of Men and Women in South and Souhteast Asia*. Paris: UNESCO.

Wolters, Oliver. 1982.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Beauty' and 'Morality': Feminity and Power in the Philippines

Min-jung Kim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in which the images of female beauty and morality can be used for positive symbols of female power and resources in the Philippines.

While beauty is the image of sexually objectified women, it can be used as the power resource for gathering their followers. Morality is the image of requesting women's sacrifice and obedience. However, women also utilize morality, based on the religious or mothering roles, in order to participat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These contradiction and ambiguity of sexual images call the propriety of the models of gender and power which assume the exclusive power of males in public domain into question. Instead, the historically oriented research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ity in three periods. The indigenous culture had the characteristics of bilateral kinship principle and relatively unmarked gender differences; Catholic religious image of chastity was emphasized during the Spanish colonial period; and the image of decadent sexuality and dichotomy of gender was dominant during the modern period under the influence of American culture. Current images of sexuality are mixtur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originate from all three periods, and they have operated in diverse and complicated ways in the context of politico-economic changes and class construction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image of feminity in the Philippines can be interpreted as one of power resources which have been historically and culturally constructed through the periods of indigenous, colonial, and modern. Women have room to manipulate and mobilize their female images as power resources in order to compete fo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advantages in the multi-dimensional context.

Key words : Philippines, women, beauty, morality, gender, power